



군종주보

2026년 9월 27일(제1319호) 연중 제26주일(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발행 : 군종교구 농보국 | 전화 : 02)749-1921, 군)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외면하고픈 우리 각자의 포도밭을 향하여!”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수석 사제들과 백성의 원로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포도밭에 가서 일하라고 했을 때, 맏아들은 “싫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일하러 갔다.”고 합니다. 반면 둘째 아들은 “가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공손하게 대답했지만, 가지 않았습다. 처음에 맏아들이 했던 대답은 분명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중에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메타멜레테이스(μεταμεληθεῖς)’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켰다는 뜻입니다. 그 후 합당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까지 참된 의미의 회개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늘 제1독서에서도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 말해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길은 공평하지 않다.”라며 불평했습니다. 과거의 잘못 때문에 지금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이 억울하다는 핑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느님께서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아무리 의인이었어도 지금 돌아서서 불의를 저지르면 죽을 것이고, 과거에 아무리 악인이었어도 “자기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생각하고 그 죄악에서 돌아서면” 그는 죽지 않고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의 종착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지니셨던 바로 그 마음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한 ‘자기 비움’과 ‘낮춤’, 그리고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복음 속 맏아들이 “싫습니다.” 했던 자신의 고집을 꺾고 생각을 바꾸어 포도밭으로 향했을 때, 그 마음 안에는 이미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이시라는 지위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당신 자신을 완전히 비워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으며,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말로만 “가겠습니다.” 하고 제자리에 머문 둘째 아들과 달리, 예수님은 온 삶과 행동으로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면 미사 때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입술로는 “가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당 문을 나서서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포도밭들(가정, 직장, 사회)에서는 얼마나 자주 나의 이기심과 허영심 때문에 “싫습니다.” 하고 주님의 뜻을 외면하며 살아갑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세상을 원망하고, 이웃을 내 기준대로 심판하며 완고하게 고집을 부리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가고 있는가?’입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는지도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서는 오늘 우리에게 맏아들처럼 “나중이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물으십니다. 나의 완고함, 나의 자존심, 나의 게으름을 꺾고 “죄악에서 돌아서서 공정과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걸음을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슴에 품읍시다. 내 완고함과 고집을 비워내고, “나중에 생각을 바꾸어” 아버지의 포도밭으로 기쁘게 일하러 갔던 그 맏아들의 구원과 생명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조현우(불리시오) 신부
용성대(공군 제20전투비행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복음 권호송

예제 18,25-28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필리 2,1-11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 음 영 성 제 송

마태 21,28-32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국군에 군중제도 창설이 태동될 때, 천주교의 참여를 주장하였던 김 신부는 육군 제1기 군중으로 자원 입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신병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유엔군의 복진으로 수복된 경남 문산 본당에 부임하여 40여일간 파괴된 성당을 복구하고 2개월간 신병 치료를 마친 후 해군의 천주교 군중업무 개척자로 입대하였다.

해군은 육군과는 달리 문관을 거치지 않고 신부와 목사들을 현역장교로 임관시켰다. 그런데 3명의 해군 군중 중 2명의 목사에게는 대위, 김동한 신부에게는 중위의 계급이 부여되었다. 이에 김동한 신부는 임관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초임 계급으로 대위를 주기로 약속한 해군 당국이 약속을 어기고 목사 군중실장의 건의에 따라 중위 계급을 부여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시작부터 목사들과 차등 대우를 받으면 후배 신부들에게도 어려움이 크리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김 신부는 해군 참모차장을 만나 항의하였고, 해군에서는 1개월 내에 대위로, 1년 후에는 소령으로 진급시켜 줄 것을 제의하였다. 이에 김 신부는 노기남 주교로부터 계급도 중요하지만 누군가 해군에 들어가 전교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권유를 받고 중위 계급을 받아들였다.

이후 해군에서는 1952년 7월 10일 유봉구 신부가 입대하였고, 이어 1953년 5월 1일 김창석 신부가 입대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1957년 전역할 때까지 해군 군중활동의 기틀을 세우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3) 해군통제부에서의 군중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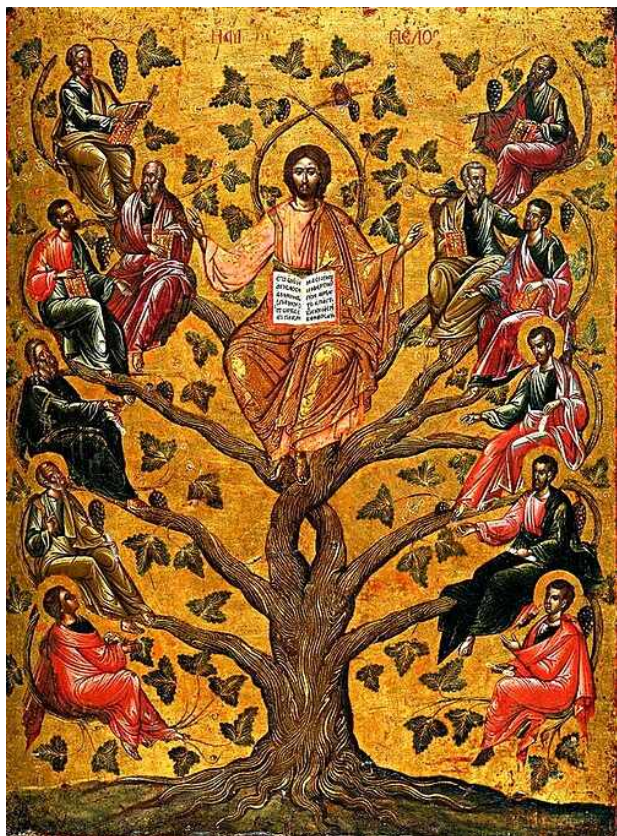
6.25 한국전쟁 중 진해에는 한때 해군통제부, 함대사령부, 해군사관학교, 해군병원, 해병대 사령부, 해군 간부후보생 교육대, 신병훈련소 등 해군부대 외에 육군사관학교와 공군사관학교 등 주요 부대들이 많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런데 진해지역에서 군중활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군중목사는 11명 있었는데 비해 군중신부는 김동한 신부 한 사람뿐이었다. <다음 주에 계속>

『진주교 군중교구시(군 시목 50년사)』 발췌, 진주교 군중교구

복 음 목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 ‘군중의 시간’ 3주차 프로그램 〈군장병의 편지〉 원고 모집
	결국 사람이 그 무엇보다 앞에 서야 할 것이 사람이다. 그 무엇에도 뒤로 설 수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여,님께 우리는 늘 첫째입니다. 우리 스스로 뒷자리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배영길 신부님의 다른 목상글도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QR코드를 확인해보세요!	- 분량: A4 빈쪽~한쪽 - 소재: 군 생활 에피소드, 소감, 진역 이후의 계획 등 소재 무관(신창곡 기능) - 기한: 연중 상시 접수 - 접수: 군중교구 홍보국 (hongbo@gunjong.or.kr) - 신청 시 소장의 모바일 쿠폰을 드립니다. - 장병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화이야기

참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본 작품은 요한 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시각화한 16세기 그리스 정교회 이콘이다.

화면 중앙에는 예수님께서 영광의 옥좌에 앉아서 계시는데, 그 몸에서 포도나무 줄기가 주변으로 굽게 뻗어 있다. 통상적인 ‘판�크라토르(전능하신 주님)’ 양식을 따르고 있으나 축복의 제스처 대신 예수님의 무릎에는 복음서가 올려져 있고, 머리 주변에는 십자형 후광이 둘러져 있어 그분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다.

하늘의 영광과 신성, 그리고 왕권을 상징하는 금박 배경을 바탕으로 예수님은 붉은빛이 감도는 금빛 옷을 입고 계시는데, 이는 영원한 빛이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직지미상(녹은 레오스 모스코스로 추정)

16세기경 제작

35 × 39cm / 그리스 정교회 이콘

예수님으로부터 뻗어 나온 포도나무의 가지마다 사도들이 앉거나 서 있는 모습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각 사도는 작은 옥좌나 가지 위에 앉아 책이나 두루마리를 들고 있다. 이는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기초이자 교리를 전하는 이데임을 보여 준다. 가지에 매달린 포도송이는 ‘그리스도에 붙어 있을 때 맺히는 열매’를 상징하며, 사도들이 그리스도라는 참포도나무에서 양분을 공급받는 가지라는 신학적 내용을 시각적으로 드러낸다. 이런 구도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풀어낸 것으로,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는 신학을 충실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16세기 그리스 정교회 이콘답게, 인물들의 얼굴은 길고 진지하며 눈이 크게 강조되어 영적 통찰과 내면성을 드러내고, 배경과 인물 사이의 깊이보다 상징과 질서가 우선되는 평면적 구성으로 ‘하늘의 질서’를 보여준다.

김은혜(엘리사벳)

교구소식

군중주보회 회원을 위한 미사 - 연중 제26주일: 팀리대 김상업 신부

◆ 교구장 동정

- 국장회의

때: 9월 29일(화) 16:00, 교구청 회의실

◆ ‘군중의 시간’ 인니

때: 주일 오후 3시 ~ 4시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작은 가정교회’ ■ 이루는 온인성사의 해”